

쇄신·참여로 내부갈등 극복

2012 종단 결산

한국 불교 장자 종단인 조계종은 올 한해 내용으로 뒤숭숭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백양사 승려 도박 몰카 사건은 단숨에 종단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 이슈로까지 부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단 쇄신 사업이 이어졌고 불교계 최초로 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불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됐다.

올해 종단적 이슈를 5개의 키워드로 살펴봤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정범 스님이 도박 추문 이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중참회를 하고있다(사진 왼쪽). 지난 8월 열린 노동자 무차대회(사진 오른쪽 위)와 진각종 전승관 낙성법회 모습(사진 오른쪽). 내부적 갈등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올 한해 이어졌다.

반목= 지난 5월 백양사 주지·방장 직을 둘러싼 갈등이 도박 몰카로 이어졌다.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8명의 스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이 공개되자 불교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스님 중 한 명은 바로 주지직을 사퇴했고, 당시 중앙총무 기관 부장급 스님들은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도 교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도박을 한 이들은 시주받을 자격도, 먹물웃을 입을 자격도 없다"라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참회문을 발표했고, 중앙총회 총재모임도 이 같은 영향으로 전부 해산했다.

여기에 정한영(법명 성호)가 자승 스님의 과거 행적에 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면서 연일 매스컴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백양사 前 주지 시몽 스님도 마지막까지 주지 직을 놓고 총무원과 힘겨루기를 펼쳤으나 결국 올해 처음 구성된 종단징계위원회에서 첫 '직무정지'를 결의와 함께 초심회계원에서 제직 징계를 받았다. 도박 관련 스님 8명은 공권정지 3년에 처해졌다.

쇄신= 도박 사태로 인한 종단 갈등을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종단 쇄신안을 내놓으며 돌파하려 했다. 당시 총무원장은 △승려는 수행 포교 전념 △사찰의 재정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 △현 대사회에 맞는 출가승단 청규 제정 등을 골자로 한 1차 쇄신안을 제시했다.

이후 중앙총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의무화 하는 쇄신 입법 등을 잇달아 개정·제정했으며, 종단쇄신위원회가 구성돼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 쇄신 작업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종단 쇄신안은 △승가청규 △종단총무쇄신안 △선거제도 △승가복지제도 등 4가지 의제로 압축됐으며, 내년부터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올해 가장 불교가 돋보였던 것은 스타 스님들의 힐링 열풍과 더불어 적

도박·몰카로 한해 홍역

종단 쇄신안 내놓고 진정

사회 참여는 '팔목상대'

극적인 사회 참여였다. 그중 지난 8월 발족한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화쟁위원회의 활약은 '백미(白眉)'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쌍용차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으로 노동자들 공감하는 무차대회를 개최했으며,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는 10만배 100일 정진에 들어가 12월 26일 회향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 33인 원탁회의 구성에도 적극 동참해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주요정당에 18대 대선 이후 '쌍용차 국정감사 진행 약속'이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불교계의 이런 전향적 행보는 20~30대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11월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문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종교에 대해 20대와 30대는 불교를 1위(20.9, 26.7%)으로 꼽

도 했다.

교계·신설= 사실상 한국불교의 가장 큰 어른이자 신성인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추대법회가 지난 3월 28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종정으로서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진제 스님은 지난 10월 'UN 세계종교지도자 모임'의 초청으로 뉴욕 UN프라자빌딩에서 법문을 설하는 등 한국불교 위상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1년여를 총무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천태종은 11월 29일 16대 총무원장에 도정 스님을 임명했으며, 12월 20일에는 구인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취임식에서 도정 스님은 천태 종풍 계승과 진작에 박자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창종 6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불사를 시작한 진각문화전승관이 10월 30일 낙성법회를 열고 그 위용을 드러냈다. 진각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완공된 진각문화전승관은 진각종의 중심사상인 삼밀수행의 가치를 세우는 교리적 공간배치로 건축됐다.

과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겪은 만큼 적지 않은 숙제도 남았다. 특히 조계종 쇄신책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의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좌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종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교구본사들의 잇달은 총립 추진으로 인한 관련 법 수정도 내년 처리해야 할 과제다. 현재 중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추진 중이며, 내년 초 총무원, 중앙총회의 총립법 실시도 진행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커피·영화·도자기... 풍성해지는 스님 교육

조계종 교육원, 2013 연수교육 일정 발표

조계종 승려 연수교육이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진다. 경주 남산 불적 답사 이외에도 해외 성지 순례가 연수로 확대됐으며, 영화·커피·도자기 만들기 등 교양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은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연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원은 "내년 연수교육은 5개 과정(경전·교양·사찰운영·전법·순례)에 걸쳐 총 43개 강좌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 '보광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고우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등의 해외 순례과정이 처음 시행

된다. 국내 프로그램으로는 '경주남산불적 답사'와 '백제불교문화답사'가 마련됐다.

실습교육으로는 '우리 차 만들기(여연 스님)', '도자기 만들기(김영길)', '수행생활과 커피(강규영)', '수행과 요가(정경 스님)' 등이 추가됐으며, 교양과정에서는 '동요보감의 세계(고미숙)', '주역의 세계(성태용)', '역사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백찬홍)', '영화로 세상읽기(곽재용)' 등 9개 강좌가 개설됐다.

경전과정에서는 '능엄경(혜거 스님)' '정토신앙의 세계(보광 스님)' '아비담마 길라잡이(각목 스님)' 등 6개 강좌가, 전법과정에서는 '동사섭(용타 스님)' '불교문화유산의 이해(흥선 스님)' '국제구호사업과 불교

(묘장 스님)' 등 4개 강좌가 신설됐다.

자원봉사활동 과정은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구본사 복지법인 산하 24개 복지시설을 자원봉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자원봉사 최소시간은 18시간에서 12시간으로 조정했다.

연수교육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교육원은 승가교육진흥기금을 통해 내년부터 승합 10년 미만인 스님의 교육비는 50%(1만원), 이외에는 25%(5만원)를 지원한다. 단, 순례과정은 연수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조계종 연수교육에는 2010년 1600명, 2011년 2900명, 2012년 3800명의 스님이 참가했으며 2013년에는 참가자가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일 기자



“덕분에 후방은 이상무”

자승 스님 6사단 격려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20일 강원도 철원 6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있어 후방은 늘 행복하다"며 "자부심을 가지고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격려금 800만원과 텔레비전 두 대, 간식을 6사단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글= 신종일 기자 · 사진= 조계종 홍보팀

BBS 사장 해임 '소위원회 구성'

12월 18일 정기이사회서

불교방송 이사회가 이채원 사장 해임 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한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12월 1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 7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감사결과 보고에 따른 사장 해임의 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김윤수 불교진흥원 이사를 위원장으로 이수덕 불교진흥원 이사, 이수덕 불교진흥원 이사, 구상진 불교진흥원 이사, 배홍규 감사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측은 "감사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사장 해임건의 절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10.27법난은 국가가 저지른 폭거”

조계종, '10·27법난 재조명 세미나' 개최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10.27법난의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 제하 발표를 통해 가해 주체가 축소되고 구체적 보상 내용이 없는 현행법 개정을 주장했다.

대오스님은 "10.27법난은 한국불교 전체를 상대로 저지른 잘못된 국가권력의 폭거"라며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온전한 명예회복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국가로 명시하고 법 효력시한을 폐지해 안정적인 진상규명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종단 집행부가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치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본 10.27법난'을,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10.27법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10.27법난의 피해와 피해자(단체)의 명예회복 방안'을 각각 발제하며 진실과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12월 1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과 16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신종일 기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최상의 가르침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지금 이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베스트 셀러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스님 저음 | 1552쪽 | 27,000원 | 정토출판

